

‘당연함’에 대한 재조명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 살림과 생활세계의 변천

왕 지에원 (王傑文)

중국전매대학
(번역: 이종미)

잘 아는 것이 꼭 잘 아는 것은 아니다

— 해설

표제에 보이는 ‘고층공동주택’은 “특정 토지 위에 계획적으로 집단 건조하고, 층을 쌓는 방식의 입체적 구성을 하여, 여러 가정이 공공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층 고층 주택이다. 단독주택과 비교하여 공동주택의 특징은 입체적 다층 구성, 단원(單元) 식 조합, 집약형 배열, 고용적용 등이며, 그것이 보급된 것은 공업화와 도시화 발전의 결과다.”¹

이론적 층위인 건축학적 시각에서 보자면, 고층공동주택의 생활세계는 최소한 주택 자체의 주거용 설계와 주택이 위치한 자연·인문 환경에 대한 주택단지 계획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우선 전자의 건축 설계 층위에서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구분되며, 후자의 단지 계획 층위에서는 자연 환경(일조, 통풍, 녹지, 수자원, 소음), 사회 환경(도로 교통, 폐기물 보관 및 운송시설, 파이프·전선·케이블 등의 배치), 인문 환경(오락 여가, 체육 단원, 문화 교육) 등의 요소가 고려된다. 건축의 설계와 계획은 통일성과 표준성을 갖추고 있으며, 거주 주체는 추상적인 ‘인간’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실천적 층위 곧 대중 일상생활 연구(신 민속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집단의 주거양식과 생활방식은 언제나 그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자취를 남기고, 특정 시대의 풍속 습관과 소비 관념 및 생활 형태를 구현한다. 고층공동주택의 생활세계에서는 주택용 설계와 주택단지 계획이 사람들의 주거양식과 생활방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활방식을 내면화하는데, 이를 통해 주거양식과 거기서 만들어진 정신적 결과물은 ‘관습’이 된다. 아울러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전승되어 온 문화 전통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반성적, 창조적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방식을 창조하고 생활 패턴의 규제를 타파하면서, 모종의 ‘신생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간다. 그런 점에서 ‘규정’과 ‘창조’는 줄곧 일상생활에 혼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1 세기에 들어와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성과가 보편화된 결과 글로벌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집단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기회와 편리한 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새로운 성과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한 사회집단이 가지고 있는 주거양식의 변천 속도도 그만큼 빨라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전통적 주거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대량의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성과를 받아들이고, 또 타국의 주거문화에서 유입된 요소들을 수용한다. 포스트모던의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하여 집단의 주거양식은 동질화와 차별화라는 모순의 두 양상을 포함한 채 이전에 없었던 다양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도시 주거문화의 ‘내폭(implosion)’은 도시 주민에게 다원화된 가치의 창출과 함께 다양한 생활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을 확장시켰다. 이는 “인류의 주거를 평등하게 하고 그 거주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²는 유엔의 목표에 부합한다. 그러나 각기 다른 집단이 계승하고 내면화한 역사적, 문화적 자원이 다르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제약도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주거양식의 선택과 창조는 그들이 처한

역사와 현실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집단이 내면화한 문화 전통은 유형, 무형의 방식으로 현대 주거양식 속에 녹아들어,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활방식을 형성한다. 따라서 역사적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 전통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특정 집단의 사유방식 및 행동양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역사적 관점에서 거주 공간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 정책 및 문화 전통의 제약과 지역 주민의 창조성 사이에 보이는 상호작용을 주목할 것이다.

1.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의 발전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의 발전사는 국가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전개되었다. 신 중국의 성립에서부터 1980년대까지 중국에 사는 일반 서민의 주택생활 수준은 매우 낮았다.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수준에서 근근이 유지되었다. 1980년대 중·후반에 들어 베이징 시에 현대적 의미의 고층공동주택이 출현했는데, 그것이 반(半) 매매용 주택이나 매매용 주택의 형태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베이징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1990년 이후의 일이다. 이러한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 발전의 역사는 대체로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겠다.

(1) 수면공간으로서의 주택 단계

제 1 단계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으로부터 1978년 문화대혁명이 끝날 때까지로, ‘수면형 주택 발전 단계’로 부를 수 있다. 중국은 이 시기에 건국 초기의 경제회복기로부터 제 1차 5개년 계획 실행,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의 설립, 문화대혁명을 차례대로 경험했다. 약 30년 동안 펼쳐진 이 전국 규모의 정치운동은 국가 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단절시켰다. 중앙정부는 의식개혁 차원에서 ‘선 생산 후 생활’의 구호를 제창하고 ‘저임금, 저소비’ 정책을 펼쳤다. 전체 국민 경제에서 주택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다. 신 중국의 복지제도 아래서 주택은 이른바 ‘분배성 품목’에 해당되었고, 국가는 각기 다른 물품에 각기 다른 주택 표준을 제정한 후 총괄적으로 분배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당시 “주거지역의 각종 기초 설비와 공용 설비 규모는 작았고, 수량도 적었으며, 수준도 낮았다. 도시 기능과 시민 생활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저 수준이었다.”³ 비록 현대적 의미에서 고층공동주택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보통의 ‘공동주택’은 이미 이때부터 존재했다.

시기	국가주택 정책 방향	공동주택 건축설계	공동주택 단지계획	문제점
1949-1957 (국민경제회복과 제 1차 5개년 계획)	고 누적 저 소비, 선 생산 후 생활, 분배제, 거주 기능	복지형 주택 배분, 소련 모델과 표준	각 기업 단위의 분산 건설, 업무단위 경제단위이자 생활단위 단일 행렬식 배치 바둑판식 배치	지나치게 낮은 표준, 평가표준의 주거면적 계수화. 공공주방, 공동 화장실, 거실 및 수납공간 불비, 비좁고 막힌 공간, 개인 사생활 노출, 주택 기능 유형의 불분명
1958-1965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 시기)	건설비 감축, 원가 절감	합리적 세대 분할 및 공간 분배, 소규모 면적의 주택 발전	각 기업 단위별 분산 건설	저 품질 저 표준, 설비 부족
1966-1976 (문화대혁명 시기)	절약이 바로 혁명이다. 모든 것의 표준을 낮춰라	작은 사각형 거실 출현	각 기업 단위별 분산 건설	1인당 주거 면적이 최저점인 3.6㎡까지 내려감

전체적으로 보면, 제 1 단계의 공동주택은 주로 ‘수면의 공간’으로 정의되어 1인당 주거 면적이 최저 기준에 가까웠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에서 볼 때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 권리, 곧 프라이버시의 보호나 평화적인 생존권, 행복 추구권 등과 같은 것이 무시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세대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단칸방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그 방은 침실을 비롯한 거실, 수납실, 식당, 응접실, 작업실 등 일체의 역할을 떠맡아야 했다.

또 여러 가족들이 동일한 주택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매우 보편적이었으며, ‘공간 절약’의 논리를 바탕으로 주방과 화장실은 복도의 공용 통로에 집중 배치되었다. 제 1 단계의 ‘공동주택’은 산업단체별 부대설비였기 때문에 이웃이 모두 동료였고 서로 간의 연락도 그만큼 활발했다.

(2) 기거공간으로서의 주택 단계

제 2 단계는 1978 년 개혁개방에서 1990 년까지로 ‘기거형 주택 발전 단계’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시기 베이징시는 고층공동주택 건설의 이념을 제창하기 시작했다. 1985 년 이후에는 고층공동주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가 계획경제 정책을 대체하면서 초기 단계의 성과를 보였고, 베이징시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국가가 노동자의 사적 소유권과 그 확장을 장려했고, 재정과 관리 기구를 통해 소비를 자극했다. 그 결과 도시 주민의 소비 수준과 주택 수준이 대폭 향상되었다. 반 (半) 상품화 혹은 상품화된 공동주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베이징시는 중국 공산당, 정부, 군대 수뇌기관의 소재지였던 관계로 사회 상층인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주택의 소유 및 점유 관계 또한 복잡했다. 따라서 베이징시 주택제도의 개혁도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었고, 1992 년에 이르러서야 ‘베이징시 주택제도 개혁 실시 방안’이 공포되었다.

시기	국가 주택정책 방향	공동주택건축설계	공동주택주거단지 계획	문제점
1978-1990 (개혁개방 정책의 확정)	경제개발 중심의 도시 건설 및 국민경제 부문 비율에 따른 조정 발전	반 상품 주택 체제, 한 대문에 한 세대, 주택면적 확대	각기업 단위별 분산 건설	고표준 주택의 대량 시공으로 고 비용 유발
1980-1990 (개혁개방 초기)	도시 주택제도 개혁	주택 거주성, 기본성, 안정성 의 표준화 (구조재 방면과 설계 방면)	정부기관의 부동산시장 집중 관 리와 총체적 통계 및 감시의 종합 개발 정책	편리한 가전사용과 편리한 주택 공간사용 사이의 모순

20 세기의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현대화된 가정용 전기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선풍기, 세탁기, 에어컨 등) 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기제품의 출현은 주택 사용 공간의 확장 및 보조 공간의 증가를 필요로 했다. 이로 인해 고층공동주택의 건축설계는 새로운 추세에 맞춰 조정되었다. 한편으로는 가정용 전기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전체 공간배치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주택 내부공간의 기능이 전문화, 다원화 (휴식, 모임, 오락, 학습, 업무, 손님 접대 등) 되었다. 당시 중국 가정에서 일기 시작한 소형화 추세와 결합되어 주택의 실내 구조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기 시작했지만, 이런 변화는 여전히 이상적이고도 관념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 본격적인 실천이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3) 소강상태의 주택 발전 단계

제 3 단계는 1990 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소강형 주택발전 단계’라고 부를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소강 (小康) 주거 표준’⁴에 따르면, ‘사람 중심’의 기초를 유지하되 편리성, 안락성과 조화가 그 조건으로 제시되었다.⁵ 국민 주택의 상품화 과정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각기 다른 부대시설과 기능의 주택 지구가 마련되어 보다 완전한 형태의 등급을 형성했다. 도시 주민들은 자신의 구매 능력과 수요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 등급의 주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주택 지구 유형은 사회적 계층의 분할을 반영하게 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고층공동주택이 베이징에 우뚝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일반 대중에게 고층공동주택이 하나의

관념으로 내면화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현대적 의미의 고층공동주택은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록 1 참조)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 현대 부동산 회사, 도처에 편재하는 대중 매체,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 주거정책 등이 현대 대중의 ‘당연’ 한 주택 관념을 공동으로 만들어냈다. 즉 ① 주택은 기본적으로 고층공동주택을 가리킨다. ② 한 채의 주택은 명확한 경계 (예컨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구체적인 면적) 가 그어진 분리 독립 세대⁶다. ③ 주택은 그 내부에 최소한 독립된 침실, 주방, 식당, 화장실, 거실, 저장실 등의 기본 공간을 포함한다. ④ 주택은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주민은 전용부분의 유형, 표준, 규격, 배치방식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⑤ 주택 설계와 주택 단지의 부대시설, 지역사회 환경 건설에는 빛, 소리, 열, 기후, 급수, 난방, 통풍, 교통, 녹지, 구매, 여가오락, 주차 등이 포함된다.

주택설계의 차원에서, 고층공동주택 내부의 각 공간과 그 구체적 기능이 고려되었고, 각 공간들 간의 관계도 조정되었다. 예컨대, 세대 내 공용 공간은 일반적으로 문 가까운 곳에 설치되었고, 방은 안쪽에, 주방과 욕실은 실내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배치되었다. 전반적으로 주거용 설계는 “공 (公) 사 (私) 의 분리, 식사와 취침의 분리, 거주생활과 수면의 분리, 청결과 불결의 분리” 의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는, 고층공동주택 설계 이념 중 ‘문명 규범’ 이 보통사람들의 습관이 되었고, 또 그것이 일상사로 여겨지는 ‘주거문화’ 의 일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베이징 주민의 빈부격차가 확연히 벌어지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유한 중 고급 소비층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층공동주택의 실내 공간을 한층 더 세련되고 완성도 있게 배치하기 시작했다. 고급 주택에는 위에서 서술한 주요 공간 이외에도 객실, 아이 방, 서재, 체력 단련실, 가사도우미방, 드레스룸 등이 부설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은 더욱 더 세련되고 안락하며, 편리한 방식으로 발전했다. 그 주택단지를 둘러싼 자연·사회·인문 환경 역시도 더 안락하고 편리하게 발전했다.

시기	국가 주택정책 방향	공동주택 건축설계	공동주택 주거지역 계획	문제점
1990-1997	주택상품화 정책의 발전 확립, 국가 고층공동주택 발전방향 확정	세대별 공간의 유연한 배치: 판식 (板式), 탑식 (塔式), 정자형 (井字型), 나비형	인정미가 넘치는 생활세계 전체적, 조합형의 지역사회 이념	고층공동주택 (50% 이상) 과 전통건축의 격차
1997-2010	국가의 ‘소강형 도농주택주거표준’ 의 공포, 고층 공동주택의 증량형 발전 경제적용주택 (1998) 과 저가임대주택 (2001), 가격과 면적을 제한한 매매용 주택 (2007 분양주택) 정책 주거안정 프로젝트 과학기술화, 지능화, 집약화, 발전 중소형 보장형 주택, 모든 사람이 적당한 주택소유	주택면적 하한선 제한과 기본 생활 수준을 보장, 주택 유형의 다원화, 대상이 있는 부동산 개발 항목, 주택 과학기술 의 대 발전	다원화되고, 다양한 취향의 주택 유형과 주거단지 이념,	화별장, 유희공실, 토지 사재 기 증가. 좁은 공간 대가족 거주 현상, 주택가격 폭등, 환경악화, 난 개발, 사회적 불평등

그러나 주택의 상품화 이후, 베이징 시 (전 중국에 이르기까지) 의 고급 고층공동주택에도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주택 내부 구조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졌고, 많은 주택이 사재기의 대상이 되었으며, 전국 단위로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 중·저소득층의 주택 구매력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사회 전체가 불공정 (부록 2, 3 참조) 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들에 직면하자 중국정부는 주거보장 시스템⁷ 을 확립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하는 중이다.

정리하면, 베이징 시 주택 건설의 역사에서 표준적 의미의 고층공동주택은 최근 20 여년 (1990-2014) 사이에 출현한 신형 주거양식이다. 1980 년대 말에서 1990 년대 초까지 시공된 고층공동주택은 표준화된 건축모델을 따르는 것이었는데, 주택 기능과 주거 환경의 표준이 너무 낮았고, 현대 과학기술 제품의 폭발적

발전을 경험하게 되자 그 설계 이념은 심각하게 뒤쳐진 것으로 인식되었다. 1990년대 말 이후, 베이징의 부동산 개발회사는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건축 이념⁸을 참고하기 시작했고, 보다 주거 친화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일군의 고층공동주택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주민의 기본적인 생리적 수요를 해결하고, 주택의 다양성, 안락성, 지능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한 결과 낮은 주거환경의 표준을 극복하는 데 발전을 이룩했다.

그런 점에서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의 생활세계는 사회·경제 발전의 과정 속에서 부단히 형성되고 구성되어 온 것이다.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 보면, 무엇이 고층공동주택인지에 대해 어떤 ‘당연함’이나 ‘이러저러하다’고 일관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특히 계층과 연령으로 구분하면), 고층공동주택 내의 생활과 생활세계는 일관되게 설명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신 민속학’은 ‘사회 기초’⁹의 연관성을 세심하게 참고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당연시되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2.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의 내적 생활방식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베이징 시의 고층공동주택은 비교적 짧은 역사 속에서 중국 경제개혁의 영향을 받으면서 출현했다. 그리고 고층공동주택 자체도 복지주택, 반 매매용 주택 (경제적용 주택, 저가 임대주택, 가격과 면적 제한 주택, 재건축 주택 등), 순 매매용 주택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주택 유형은 국가가 각기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시행한 주택정책과 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 집단의 신분, 주택 단지의 환경, 생활방식과도 상관이 있다. 현재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의 유형은 베이징 시정부가 1994년에 반포한 ‘삼개사건 (三改四建)’ 주택제도 개혁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그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 투자와 관련하여 국가와 직장단위가 전담하던 체제에서 국가, 직장단위, 개인 등 삼자가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각 단위에서 담당하던 주택 건설, 분배, 수리, 관리 체계가 전문화된 운영 체계로 바뀌었다. 주택의 현물복지 분배 방식이 노동에 따른 화폐임금 분배 방식으로 바뀌었다. 중·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성격의 경제적용 주택 제공 체제와 고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매매용 주택 공급 체제가 완비되었다. 주택기금 제도도 설립했다. 주택금융과 주택보험을 발전시켜 정책성과 상품성이 공존하는 주택대출 체계를 확립했다. 규범화된 부동산 거래시장을 마련하고 사회화된 건물수리 및 관리 시장을 발전시켰다.¹⁰

바뀌 말하면,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의 역사에서 초창기 입주자는 아마도 ‘복지주택’의 방식으로 입주했을 것이다. 1990년대 전후의 입주자는 ‘반 매매용 주택’의 방식으로 입주했을 것이며, 21세기의 거주자는 ‘순 매매용 주택’의 방식으로 입주했을 것이다. 다른 유형의 고층공동주택에는 서로 다른 사회집단이 거주하는바, 예컨대 현재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집단은 대부분 나이가 70세에 이른 퇴직자들이다. 그들의 임금 수준이 낮은 만큼 그들이 거주하는 고층공동주택은 그 건축 년대가 오래되고, 설계 이념 또한 낡았으며, 사회 환경도 낙후되었다. 서로 다른 유형의 고층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회 집단은 생활방식 또한 서로 다르다. 반 매매용 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집단은 대부분이 막 직장에 진입한 재직 직원이다. 그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있으며, 저축은 적을지라도 생활 취향이 현대화된 편이어서 주택의 현대화 설비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높다. 매매용 주택의 거주 집단은 곧 퇴직하는 직원이나 상당한 저축이 있는 중산층으로, 그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소비능력과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다.

고층공동주택으로 들어가 주민의 ‘일상생활’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었다. 우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대도시 주민들의 신임을 얻고, 또 그들의 생활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 받아야 비로소 방문취재와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설령 고층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민속학자에게 자신들의 삶의 보금자리에 들어가 조사하는 것을 승낙한다 하여도, 민속학자가 볼 수 있는 내용은 그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를 진술한 그들의 ‘일상생활’ 이라고 할 수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현대 민속학이 대도시 고층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세계를 연구하는 것은 그 문제의식과 연구방법 두 차원에서 아직 탐색과 시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에 경험적 관찰과 탐방을 위해 개념 및 분석도구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는 확실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베이징 시의 고층공동주택 중에 복지주택과 반 매매용 주택의 대부분은 제 5 순환도로 외곽의 ‘도농 결합부’ 지대에 있다. 이 고층공동주택은 1990 년대에 세워졌는데 주민은 대부분 ‘재건축 주택 세대 (回遷戶)’ (고층공동주택이 점유한 토지에 원래 주거하던 농민들) 였고, 그 외 일부는 국영기업단위의 퇴직자였다. 그리고 주민 대부분이 1990 년대 중후반에 입주한 사람들이었다. 이 고층공동주택은 주로 탑 모양의 고층건물이고 일부는 반로우 (板樓) 형태였으며, 특정 구역에 소속되어 집중 관리되고 있었다.

이하에서 언급할 30 세대의 주택은 각각 베이징 시 차오양 구 (朝陽區), 까오뻬이띠엔 향 (高碑店鄉), 셴지엔팡 향 (三間房鄉) 과 도우꺼쭈앙 향 (豆各莊鄉) 의 다섯 개 구역에 속해 있다. 그중 19 세대의 주민은 재건축 세대에 속하고 11 세대 주민은 국영기업단위의 퇴직자에 속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지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들이었는데, 그 지구 직원 (그녀들은 필자의 학생과 친구임) 에 대한 신임을 바탕으로 필자의 조사와 탐방을 허락했다. (부록 4 참조)

고층공동주택에서 주민 생활세계의 진열과 배치가 이미 일상생활의 터전을 구성했고, 동시에 일상 생활세계 그 자체였다. 모두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층공동주택의 일상생활 공간은 주거용 설계와 주택단지 계획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물리적 설비는 대개 ‘정해진 것’ 이므로 주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복지주택과 반 매매용 주택이 매매용 주택과 구별되는 첫 번째의 중요한 특징이다.

예를 들면, 1990 년대 중반 베이징 시 차오양 구 동쪽 제 5 순환로 외곽에 위치한 탑식 고층공동주택은 모두 18 층 이상에 두 대의 엘리베이터나 세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 건물이다. 각 층은 8-12 세대의 주택으로 다양하며, 대부분의 가구가 방 두 칸에 거실, 주방, 화장실이 딸려 있는 구조였다. 탑식 고층공동주택의 장점은 대량의 공간을 집약하여 더 많은 세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점도 매우 분명했는데, 주택들 중 약 4 분의 3 이 채광 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주택 내부도 설계 및 건축에 있어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다만,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는데, 전유부분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어서 거주자가 주택 공간을 임의적으로 설계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이미 만들어져 주어진 것으로, 주민들은 이를 ‘당연한 것’ 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져 주어진’ 공간은 결코 고정되어 변치 않는 것이 아니었다. 주민들은 상당히 자유롭고도 예술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공간을 설계했다.¹¹ 딱딱하고 일률적인 건축 설계에 대해 주민의 ‘능동성’ 은 주로 다음의 측면에서 실현되었다.

(1) 주택 내부공사

주민들이 통일된 주택 배치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세대의 특수 상황에 따라 기존에 배치된 내부 공간이 조정되었다. 예컨대 주민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던 전유부분의 특정 공간을 다시 구조변경 했다. 어떤 곳은 방 한 칸을 막아 두 칸으로 했고, 어떤 곳은 거실에서 작은 방을 분할했으며, 어떤 곳은 주택 설계에 없던 구석에 수납공간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런 모든 구조 변경은 기본적으로 실용적 목적에서 나왔다. 실용적 목적이란 주택 내부의 기능 측면을 한층 더 고려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주택은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 네 가지 커다란 기능 부분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안락하고 편리한 현대화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었다. 특히 식당, 수납공간, 드레스룸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야기했으므로, 주민들은

이미 있는 기능 공간을 나누어 그들만의 기능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다.

다른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칸막이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구역을 나누는 것은 확실히 필요했다. 그들이 절충한 방법은 동일한 기능 부분을 관념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거실의 특정 구석에서만 식사를 하고 또 다른 구석에는 잡다한 물건들을 쌓아두었다. 즉, 실제로 다른 공간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주민의 관념 속에서는 기능 구역이 엄연히 존재했다.

주택 기간시설 (물, 전기, 가스배선) 의 개조는 주택 내부공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안이다. 주택 설계와 건축 당시에는 아직 시대의 발전 방향과 진보의 속도를 예측할 수 없었고, 기초 설비 또한 주민들의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예를 들면, 당시의 주택은 인터넷 회선이 설치되지 않았고, 유선 텔레비전 선로도 눈에 보이도록 불합리하게 설치되었다. 게다가 탑식 고층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중앙집중난방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전체 설비 및 설치가 불합리했기 때문에 많은 주택의 겨울철 실내 온도가 기준에 못 미쳤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난방 시설을 교체했는데, 물론 최근 시공된 고층공동주택에서는 이 시설이 전유부분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주민들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90 년대에 입주한 베이징 시의 고층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내장공사를 거친 것이었다. 거실, 침실의 바닥은 60 cm의 사각형 타일이 깔렸고, 주방과 욕실은 20 × 40 cm의 직사각형 타일보드가 깔려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목재나 다른 재질의 바닥, 혹은 다른 스타일의 보드타일로 교체했다. 원래 있던 창문을 바꾸기도 했으며, 벽에 석회를 칠하고, 노출된 파이프를 대리석이나 목재로 싸서 ‘확 달라진 면모’ 를 보여주려고 애썼다. 중국의 ‘새 집’ 이란 되도록 모든 것이 ‘새로운 것’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 주택 내부 단장

주택의 내부 단장은 주민의 자유 의지가 집중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경험적 관찰에 의하면,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의 내부 단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으로 구분되었다.

① 가구배치

새 집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주택 자체만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구도 새로운 것이 가장 좋다. 새 집을 위해 길이를 재고 새 가구를 짜는 것은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 주민의 습관이어서 주택과 가구는 대부분 ‘동갑’ 이다. 그 주택에서 주택보다 더 오래된 가구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오랜 가구가 버려지는 중요한 이유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고층공동주택의 공간 길이에 맞지 않는다. 둘째, 현대 주택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셋째, 비실용적이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다만, 옛 집에서 가져온 등받이 없는 낮은 걸상, 여주인이 결혼할 때 혼수로 가져온 옛날 캐직은 여전히 그 주인이 간직하고 있다.

주택의 배치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가구를 짜고 주민들의 개인적 기호와 재력에 맞춰 특정한 색깔과 재질의 가구를 선택하는 것은 이곳의 유행이다. 주택의 바닥과 벽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하고, 각 가정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가구를 조합하여 배치한다. 대부분의 주택 방에는 2 인용이나 1 인용 침대, 커다란 옷장과 침대 머리맡 수납장이 딸려 있고, 주방에는 찬장이 놓여 있으며, 거실에는 ‘L’ 자형의 소파와 티 테이블이 놓여있다. 그 건너편에는 예외 없이 걸이형 혹은 탁자형 액정 평면 텔레비전이 있다. 그리고 식탁도 거실에 배치되는 가구 중 하나다.

최신의 현대화된 가구를 배치하는 것도 유행이다. 물론 고품의 가구를 배치하는 것은 더 고차원의 시대적 유행이며, 특수한 취향과 신분을 과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많은 세대주들은 자기 집에 새로 들여놓은 엔틱 가구나 공예품 때문에 매우 우쭐해 한다. 따라서 오랜 가구를 버리는 것은 조사대상 주민들이 ‘고가구’ 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라, 그 고가구가 보존할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주방의 배치도 고층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

②가전 배치

기본적으로 각 세대의 텔레비전은 거실에 놓인다. 텔레비전 시청은 한 가족이 저녁 식사 후 함께 앉아서 교류하고 소통할 기회를 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가정은 방에 추가적으로 텔레비전을 설치했다.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시작했고 가족 구성원들이 동시에 다른 채널을 시청해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컴퓨터와 휴대폰의 보급으로 인해 텔레비전 시청이 중·노년층의 반복적 일상이 된 반면, 젊은이들은 주로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정보와 오락을 얻는다. 컴퓨터(특히 평면 텔레비전)가 보급되었을 당시, 주택에는 전문적인 업무공간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이나 거실에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동시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그 방이나 거실은 휴식, 오락, 업무, 손님 접대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임시적으로 겸비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곳에서는 세탁기와 냉장고의 사용도 매우 보편적이다. 그러나 그것들의 위치가 완전히 같지는 않아서, 대부분의 조사 대상 주택 중 세탁기와 냉장고를 배치하는 고정된 공간을 설계한 곳은 없었다. 일부 주민은 세탁기를 주방에 두었지만, 그보다 많은 주민들이 세탁기를 욕실에 두었다. 일부 주민은 냉장고를 주방에 두었고 다른 주민들은 거실에 두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술한 가전제품의 교체 속도는 가히 놀랄 만하다. 그 기능과 설치의 정밀화, 민첩화, 대중화의 방향으로 급속히 발전했다. 그에 비해 조사대상인 공동주택의 주민들의 경우 텔레비전은 모두 교체했지만(사용수명 때문은 아니지만), 세탁기와 냉장고는 아무도 교체하지 않았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이렇다. 거실에 거는 텔레비전은 세대주의 ‘얼굴’ 과도 같아서, 대형 슬림형 액정 텔레비전은 이 가정의 체면을 세워주는 가구가 된다. 게다가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시청 오락의 향유는 세대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반대로, 세탁기는 대부분 매우 오래되었는데, 그것도 진열품의 일종으로서만 의미를 갖고 있었다. 차라리 손세탁을 할지언정 세탁기 작동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번거로움을 싫어하고, 물과 전기의 낭비를 꺼리며, 게다가 손세탁의 효과를 더 신뢰했다. 커다란 세탁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탁기가 일 년 내내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냉장고도 대부분 구식이었는데, 세대주들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다. 그들에게 냉장고는 냉장보관 기능만 있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기제품 이외에도, 최근 들어 핫플레이트 쿡탑(電磁爐), 전자레인지, 난방기, 전기밥솥, 정수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각종 크고 작은 가정용 전기제품이 일반 가정에 등장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전기제품을 모두 합당한 위치에 배치하지는 않았다. 거의 모든 가정이 자신들의 공간 조건과 개인 습관에 따라 임의대로 이 가전제품들을 두었다. 다만 꼭 짚고 넘어갈 것은, 본 조사 대상인 공동주택의 집주인들에게 이 가전제품들은 실용적 기능을 담당하는 제품이라기보다 오히려 장식적 기능을 가진 가구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그 제품들의 존재는 집주인으로 하여금 이런 물건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지, 이런 물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경우에도 그들은 이 물건들을 거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현상은 거의 모든 가정에 에어컨이 있지만 동시에 선풍기도 있었다. 그러나 삼복더위에도 많은 가정의 에어컨은 여전히 에어컨 덮개로 꼭꼭 덮여 있었고, 세대주는 선풍기만 사용하지 에어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수많은 중·노년층은 습관이 안 되었다거나 에어컨의 찬바람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 많은 가정에서 에어컨은 결코 실용적 기능을 갖지 못한 ‘진열품’ 일 뿐이었다.

③ 인테리어 소품

가구와 가전 이외에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생활 취향을 더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 항목은 가정 장식품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 장식품’이란, 주택의 내벽, 가구, 가전에 걸고 부착하는 작은 장식품을 가리킨다. 주민들은 의도적으로 공간을 남겨 이들 장식품을 전시했는데, 이것들은 주민 개인의 신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다. 예를 들면, 몇몇 주민들은 거실이나 방에 일부러 벽장을 만들고 그 안에 여러 방법으로 수집한 술병, 신상 (神像), 로봇 피규어, 무협서적, 개인 트로피, 테마 공예품, 호두 한 쌍 등을 진열했다. 이는 집주인 (특히 남자주인) 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정성을 들이는 공간으로, 그 가정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이기도 하다. 남자 주인이 이 특별한 공간을 자신의 지위를 전시하는 데 활용하는 것처럼 여주인들은, 자신이 수놓은 십자수 수예품을 거실이나 방에 걸어 놓는 것을 좋아했다. 결혼사진, 가족사진, 아이들의 사진, 기타 집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이라도 진열하는 것을 좋아했다. 만약 집에 어린 아이라도 있다면, 방안의 어느 한 구석에는 그 (그녀) 들의 손에 닿을 만한 위치에 붙이는 종이나 어지럽게 낙서한 종자들이 어김없이 붙어 있다.

가정 장식품에는 가정의 신앙을 담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모든 가정에서는 설 명절 기간에 춘련 (春聯) 을 붙이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 관우, 재신 (財神), 미륵, 백문대선 (白門大仙), 심지어 마오쩌둥 (毛澤東) 을 모시는 경우도 있다. 또 1년 중 특별한 기간을 정해 집 한 구석에 조상의 영령을 모시고, 풍수 관념에 따른 가구 배치와 장식품 진열에 공을 들이기도 한다. 도교를 신봉하는 가정에서는 부적을 붙이고, 인터넷에서 성물을 구매하여 자신만의 ‘신비 신앙’ 부호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공동주택에서는 그 부호가 깨져 있는 경우도 많아, 그것이 이미 사소한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다.

④ 기타 물건

중국인들은 ‘쌓아두기’ 를 좋아한다. 사용한 옛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경향은 앞의 내용과 일견 모순되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새 집으로 이사할 때는 항상 완전히 새로운 것에 온 힘을 기울인다. ‘완전히 새롭다’ 는 것은 새로운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운에 대한 그들의 간절한 바램은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는 춘절 기간 동안 중국인들이 갖는 심리 상태와 유사하다. 일종의 무속적인 심리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쌓아두기’ 를 좋아한다. 시간이 갈수록 옛 물건들이 쌓여가고, 주택의 제한된 공간은 이 물건들을 수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이 물건들은 기존의 수납공간을 벗어나 다른 기능 공간으로 침투하기 일췌다. 그 결과는 “주택 내부공간의 기능 혼잡” 이다. 거실, 방, 베란다가 예외 없이 수납공간 (이 주택들은 애초 수납공간이 설계되지 않았다) 의 기능을 대신한다. 우리는 모든 주택의 베란다가 잡다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아야 했다. 여주인이 들보지 못한 화분, 아이가 쓰다 버린 장난감, 남자 주인이 늘 찾아 헤매는 공구들. 게다가 냉장고에는 언제 넣어두었는지 모를 오래된 식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옷장에는 다시는 입지 않을 예전 옷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쌓아두기’ 습관은 어느 가정에서나 확인되는 보편적 현상이다.

여주인들은 주택 설계의 불합리와 ‘쌓아두기’ 습관의 희생양이다. 만일 그녀가 가정용품을 쉽사리 버린다면, 그녀는 ‘집안 살림을 못한다’ 는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살다보면 언젠가는 이 잡동사니들을 다시 쓸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그것을 어디 가서 다시 찾겠는가?’ 라는 것이다. 따라서 살림을 잘하고 검소한 여주인이라면 불시의 필요에 대비해서 이 물건들을 마땅히 다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오래된 물건들이 너무 많아 집안이 쓰레기장으로 변한다면, 그 또한 ‘칠칠맞고 게으르다’ 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친지나 친구라도 방문해서 이 더럽고 정리되지 않은 집을 보기라도 한다면 남자

주인으로서 ‘매우 창피한 일’ 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그의 사회적 위신은 떨어질 것이다. 주택의 이런 모습과 여주인의 ‘부덕 (婦德)’ 을 연결시키는 일이 매우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일상적 대화 속에서 매우 흔하게 거론되는 일이다.

⑤ 가정 애완동물

주민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비록 주택 내부에 애완동물을 위해 미리 마련된 공간이 없어도 말이다. 고양이, 개와 새 (비둘기, 구관조, 앵무새), 이 세 가지 동물이 그들이 주로 키우는 애완동물이다.

애완동물은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주민들은 그들의 애완동물에게 애칭을 지어주고, 하루 중 특별한 시간을 내어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가 산책시킨다. 그런 점에서 애완동물은 주민의 일상과 휴식시간을 조정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애완견의 생활습관에 맞춰 대소변을 가리기 위해 새벽부터 잠옷을 입고 나와 애완견을 산책시키는가 하면, 여기저기서 그들의 애칭을 부르는 소리가 주택 단지 내의 일상적 풍경이 되었다. 주인들은 심지어 애완동물들 간의 교류를 위해 그들 간의 교류를 발전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택단지 관리자가 실직할 정도로 공중도덕 관념이 부족하다. 애완동물의 대소변은 단지 내 어디서나 눈에 띄었고, 주차된 자동차가 애완견의 소변에 젖어있는 경우도 허다했다.

베이징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이다. 특히 새를 기른다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새장을 들고 새를 산책시키는 것이 ‘베이징 토박이’ 라는 하나의 신분 상징이 되기도 한다. 새장을 들고 나온 베이징 토박이들은 공원에 함께 모여 새 기르는 경험을 교류하면서, 그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대부분 가정 내부에 한정되는 매우 개인적인 일인 반면, 비둘기를 키우는 것은 이웃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호루라기를 꼬리에 맨 비둘기가 그 소리를 내면서 공중을 나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3) 주택단지 내 생활

각 주택을 걸어 나오면, 복도, 각 동 건물, 건물 사이의 통로, 단지 내 작은 광장과 크고 작은 상점들이 모두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구성한다. 이 공간은 주민들의 공공 공간이기도 하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주민은 단지 내 공공사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확히 그 반대다. 주민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들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단지 내 생활건설에 참여하는 모습과 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공공’ 의 것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고, 당연히 멀찌감치 몸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선 그들은 이웃 관념이 희박하다. 이웃에 대한 어떤 개인 정보도 모르는 이들이 허다했다. 한 층마다 8~10 세대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알지 못했고 교류할 기회도 전혀 없었다. 물론 입주하기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같은 회사의 동료나 동향민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소원해졌다.

다음, 일반 주민과 단지 내 부동산 관리회사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깊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회사는 기업주위원회 의 주를 받아 단지 내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공공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식이 희박했고, 이 회사는 ‘종이 크면 주인을 깔본다’ 는 말이 있듯이 주택단지 내 일상생활의 ‘관리자’ (공공사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가 되었다. 이를테면, 이 회사는 주차구역을 조정한다든지, 개인이 임의로 임시 건축물을 세운다든지, 행상인들이 불법수입을 취한다든지 할 때,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위생 청결, 소음, 공공 설비의 수리 등 모든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리하여 단지 내 벽에는 작은 광고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통로 입구의 쓰레기는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다.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단지 내를

돌아다녔고, 주민들의 차가 공공 통로에 세워진 경우도 다반사였다. 주민들이 ‘이상한 일을 만나도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고 말할 만큼 이런 일은 그들의 ‘일상’ 이 되어버렸다.

셋째, 주민과 단지 지원센터 사이의 관계는 가까우면서도 멀었다. 지원센터는 주민의 자치조직에 속하고 그 조직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선출로 뽑힌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업무는 정부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들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결국 이 센터는 사업 단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자의 사회 서비스 센터가 되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서비스는 지원센터의 책임에 속하는바, 이 센터는 주택단지 주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인간관계를 촉진하며, 생활환경 및 생활 분쟁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기구다. 그러나 그 일상 업무는 정부의 필요에 더 집중했다. 이를테면 위생체육, 교육 과학 보급, 가족계획 업무 등 정부가 위탁한 사무 관리와 특별한 입찰 등 상급 업무를 전담했다. 정부 정보, 대민봉사 정보 등 지문 봉사를 제공했고, 문화 오락 등의 서비스, 주민의 자조·협동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대다수가 중·노년층이었고 가장 많이 참여하는 일은 문화 오락 활동이었다. 반면에 청·장년층이 이 센터와 관련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넷째, 단지들 사이의 공공장소 (상점, 거리, 광장, 큰길, 인도 등) 에서 시민들의 공공의식은 더욱 희박하다. 일례로, 베이징 시에서는 일몰 후나 일출 전 중·노년층 여성들이 공공장소에 모여 ‘광장춤’ 을 춘다. 요란한 음악과 시끄러운 소리는 주민들 (특히 출근, 등교하는 사람들) 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 또한 주민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요컨대, 근 20 년에 걸쳐 벌어진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하이테크 제품의 신속한 보급 속에서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 주민들의 생활세계는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본 논문이 주목한 복리 주택과 반 매매 주택에서, 그 시대적·정치적 한계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의 기본 틀로 작용했다. 그리고 주민들은 과학기술 문명의 글로벌화가 만들어내는 현실적 조건의 토대 위에서, 과거로부터 계승한 문화와 외부로부터 유입된 문화 산물, 다른 계층으로부터 가져온 문화 전통과 산물들을 모두 뒤섞어 자기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사용했고, 그 속에서 자신의 신분적 정체성을 구축했다.

3. ‘일상생활의 계몽’을 넘어서

콕스트린은 “민속학이 지금까지 의문시하지 않았던 것과 당연시되는 영역에 관심을 갖는 학문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배신할 준비를 해야 한다. 민속학은 당연시되는 것을 주목하는 학문이기 때문 (Volkskunde is the discipline that brings the taken-for-granted into view)”¹² 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속학이 당연시되는 것을 철저히 변화시킨 방식은 그것을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즉, 일찍이 옳았던 것을 더 이상 옳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활’ 과 ‘민속’ 의 구별이다.

콕스트린의 이러한 민속학 정의는 이와모토 미치야 (岩本通彌) 가 표방한 ‘현대 민속학’ 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와모토가 소개했듯이 이 현대적인 학문의 자리매김은 ‘팔켄슈타인 선언 (Falkenstein Formula)’¹³ 에서 시작되는데, 이 ‘선언’ 에서 강조한 것은 바로 다음의 두 마디였다. “

민속학은 주관과 객관 형식 속에서 문화적 가치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 원인과 과정을 포함해서) . 그 목적은 사회문화적 문제의 해결을 돕는 것에 있다.”¹⁴

이 말은 헤르만 바우징거 (Herman Bausinger) 가 강조했던 ‘일상생활의 계몽’ 을 의미한다. 바우징거와 그 학파의 해석에 따르면, ‘계몽’ 이란 전통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지속하고, 대중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던 표면적인 규칙들을 직접 대면하고 재고할 수 있도록 힘써 가르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한 것과 그

규칙들은 이제까지 주목을 끌지 못했고 게다가 사고를 유발하는 대상도 아니었다. 베른하르트 (Bernhardt) 는 “이 강연과 논문들에 의거한 계몽 작업은 청중과 독자에게 보다 폭넓은 사회·문화를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사회·문화에 대해 사색하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계몽적인 일상생활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고 논평했다.

독일민속학의 영향을 받은 이와모토 역시 일본민속학의 전통 속에서 현대 민속학의 범위를 새롭게 확정했다. “우리들의 생활은 매일 전부 변화한다. 당연한 일이나 주위의 자질구레한 물건조차 모두 그 내력이 있다 (의의나 기능의 변화 면에서). 우리들 생활의 개선을 위해, ‘난 알아, 이것은 당연한 거야’라는 인식에 정체되어 사고를 멈춰버리면 안 되고, 그 변화들에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속학의 존재 의의와 기본 이념이다.”¹⁶

물론 바우징거가 말한 ‘계몽’은 주입을 위한 것도 아니고, 민중을 경시해서 그들의 삶을 대충 훑어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 아는 일상 현상의 배후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들¹⁷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통찰하여, 민중이 자각적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반성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와모토도 이와 매우 유사한 입장이다.

그러나 독일민속학은, “바우징거 이후 두 세대를 거치면서 일상생활의 계몽에만 그치는 연구 경향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 통합과 글로벌화 등 거시적인 사회발전 과정에 대한 이론과 개념들을 수용함으로써 시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⁸ 확실히 전후 독일 민속학, 특히 튀빙겐 (Tübingen) 의 ‘경험문화연구소’는 시대와 사회 변화를 따라 끊임없이 자기발명과 자기혁신을 거듭했다.

‘일상생활 연구’에 대해 대해 말하자면, 세계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성과들이 제시되었다. 곧 앙리 르페브르 (Henri Lefebvre) 의 ‘일상생활 비판’, 아그네스 헬러 (Agnes Heller) 의 ‘일상생활의 철학적 분석’,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자, 게오르그 짐멜 (Georg Simmel),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 상황주의 인터내셔널의 기 드보르 (Guy Debord), 라울 바네겔 (Raoul Vaneigem) 의 ‘일상생활의 혁명’ 연구, 미셸 드 세르토 (Michel de Certeau) 의 ‘일상생활의 실천’ 연구, 노베르트 엘리아스 (Norbert Elias) 의 ‘일상생활 비평’, 미학자들의 ‘일상생활의 심미화’ 연구¹⁹ 등이 그것이다. 과연 민속학은 이러한 학문적 맥락 속에 어떻게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어떻게 민속학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기여할 것인가?²⁰ ‘계몽’의 입장보다 진일보한 민속학의 성찰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타 문화의 민속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몽’의 태도 이외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4. 덧붙이는 말

본 논문은 베이징 시 고층공동주택의 생활세계와 생활 스타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택 내·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의 ‘정지상태 화면’만을 주목했다. 게다가 주택 내부의 배치와 장식, 단지 생활의 일반적 측면 등 주민들이 봐주기를 희망하는 화면만 주목했다. 따라서 주민의 구체적인 ‘실천’은 고려하지 않았다. 주택 설계와 단지구획 설계 자체가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환경이고, 일상생활 자체가 민속을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주민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재료들을 통해 자신들의 일상을 표현하는지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천’논리가 주민들의 일상생활방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임은 분명하다.²¹

이를테면, 우리는 고층주택 안의 가구나 가전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 겨우 알아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른다. 많은 가정에 다기능 전자동 세탁기가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버튼을 다루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 많은 주민들은 그 버튼 중 일부만 다룰 줄 알고, 다른 많은 기능 버튼들은

이제껏 사용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텔레비전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용 방법이 설명서에 쓰여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사용 방법을 정확히 몰랐다. 심지어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식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도 발견했다. 많은 주민들이 식탁이 아닌 테이블에서 식사했다. 확실히 ‘일상’은 이런 실천 속에서 더 많이 구현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포스트모던 사회의 핵심적 특징은 고도의 ‘자기성찰성 self-reflexivity’에 있다. 대중매체가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오고, 하이테크 제품이 보편적으로 침투한 상황에서, 글로벌한 이동의 간편화와 가속화는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다원화된 참고사항을 통해 자신의 일상생활을 성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예컨대, 중국에서 80년대 이후 태어난 젊은이들은 사회 엘리트,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대중매체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무엇이 이상적인 주택인지 잘 알고 있으며, 고층공동주택이 당연히 포함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 민속학이 주목하는 ‘당연함’은 점점 더 모호하고 분명치 않은 개념이 되었다. 현대사회 집단의 이질화는 갈수록 뚜렷해졌는데, 가령 한 가정에서 아버지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되기에 이르렀다.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다. 또 글로벌화한 주택단지 내에서는 어떤 ‘당연함’이 당연한 게 아니고 오히려 ‘당연함’과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일반적 지식으로서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갈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보편적인 ‘당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대 민속학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방식이 만들어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일상생활의 ‘사회적 토대’와 그 토대 위에서 일상생활이 ‘드러나는 양상’의 본질을 포착해야 한다.

현대 도시민중의 일상생활이 부단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이상적 생활세계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현대 민속학자는 단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일상’의 형성 과정만을 추구해야 하는가? 물론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의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이상적인 생활세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면, ‘실제로 그러한’ 생활세계는 이리저리한 문제들로 가득 찬 공간으로 재현될 것이고, 따라서 민속학은 그 일상생활을 ‘혁명’, ‘비판’ 할 만한 합리성과 합법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들테면, 중국의 주민들은 쓰레기를 과학적으로 분리수거하려는 의식이 없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는 음식 쓰레기가 가장 많은데, 보통 주방에는 하나의 쓰레기통만 구비되어 있어서 음식 쓰레기도 다른 쓰레기와 구분되지 않은 채 거기 버려진다. 이 쓰레기는 곧장 단지 내 하나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신형 단지 중에는 분리수거함이 구비된 곳도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는다. 중국의 현대 민속학자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이 이러한 일상적 행위를 ‘이치상 당연하다’고 간주하고 깨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한 가장 선진적인 국가인 일본의 일상생활과 그 습관을 이해하고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엘리트가 아닌 민중의 일원으로서 중국의 현대 민속학자가 중국 민중들의 일상생활을 ‘비판하고 개혁하는’ 임무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이다.

注

- 1) 胡惠琴, 「集合住宅의理論探索」, 『建築學報』, 2004년 제10기, 13쪽.
- 2) 국제연합, 「人居宣言Ⅱ」. 1996. 원문에는 “사람들은 적당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주거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 3) 熊燕, 「中國城市集合住宅類型學研究(1949-2008): 以北京市集合住宅類型爲例」, 華中科技大學博士學位論文, 1 쪽.
- 4) 소강 (小康) 주거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주택은 5 가지 기본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양호한 주거성, 안락성, 안전성, 내구성, 경제성이다. 주거성은 난방성능, 공기의 질, 음향 환경, 채광 환경 등을 포함하고, 안락성은 주택의 평면기능, 설비 배치, 주방 욕실 설계, 시각효과, 먼적 등을 포함한다. 안전성은 방화, 방범, 미끄럼 방지 등 일상적 사고의 내용을 포함하고, 내구성은 배치와 주택 제품의 내구성, 방수, 방충 등을 포함하며, 경제성은 사용연한 비용의 분석과 평가를 포함한다. (앞의 논문, 67~68 쪽)

- 5) 2000年小康型城鄉住宅科技產業工程城市示範小區規劃設計導則, 住宅科技, 1997년 제 3기.
- 6) 1987년에 이르러 중국 정부는 住宅建築設計規範 을 제정했다. 이 규범에 따르면 “주택은 실내구조에 따라 설계해야 하고 각 세대는 반드시 한 대문을 가지며, 방, 주방, 욕실과 수납공간을 배치해야 한다.”
- 7) 베이징 시는 주택공급체계에 있어서 3 단계의 정책을 시행했다. ① 집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영가 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한다. ② 어느 정도 지불 능력이 있는 저소득 빈곤 가정에 대해 경제적용 주택을 배정 판매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③ 중등수입 이하 가정의 임대 주거 수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제한이 있는 상품 주택을 제공한다.
- 8) 1980년에 베이징 시는 첫 번째 부동산종합건설개발회사를 편성했는데, 2006년에 이르러 베이징에 등록된 부동산회사는 무려 2958 곳이었다. 부동산개발투자와 판매는 고속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1991-1995년에 그 투자액이 5,684 억을 넘어섰고, 1996-2000년에는 19,795 억을 넘어섰으며, 2001-2005년에는 59,740 억을 넘어섰다. (齊心, 「北京住房制度改革: 歷程・成就與反思, 北京規劃建設」, 2008년 제 9기, 61 쪽.)
- 9) Dorothy Noyes, 2012, “The Social Base of Folklore”, *A Companion to Folklore*, Edited by Regina F. Bendix and Galit Hasan-Rokem.. Blackwell Publishing Ltd. pp.13-39.
- 10) 北京市人民政府貫徹國務院關於深化城鎮住房制度改革決定的通知, 1994년 12월.
- 11) 프랑스의 저명한 사상가 미셸 드 세르토 (Michel de Certeau) 도 대중은 실천적 예술, 즉 교묘한 저항의 전략을 써서 일상생활을 창조한다고 여겼다. 그 전략에 힘입어 그들은 사물과 법칙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방식대로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속임수와 책략, 사냥꾼적 기질, 변화무쌍함, 새로운 어휘와 서술, 갖가지 발명은 그것들을 발명할 능력이 있는 보통 사람들이 결코 맹목적이거나 순종적이지 않고, 소극적, 피동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 (미셸 드 세르토 <方琳琳・黃春柳 역>, 『日常生活實踐: 1・實踐的藝術』, 南京大學出版社, 2009, 31-48 쪽.)
- 12) Konrad Köstlin, “On the Brink of the next Century: the Necessary Invention of the present”,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Vol.36, No.2/3, 1999, pp.289-298.
- 13) 1970년 독일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산골 마을에 민속학자들 (그들 대부분은 튀빙겐 대학 ‘루드비히 우어란트 연구소 (Ludwig-Uhland-Institut)’ 에서 왔다) 가 모여, 모종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선언’ 에 합의했다. 이와모토는 이 선언을 “객체 및 주체로부터 표현되는 문화적 가치의 변화와 그 원인,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과정을 분석한 것” 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객체와 주체란 다음과 같다. 곧 문화적 가치관은 제도나 규범의 형태로 ‘객관적으로 표현되고’, 태도나 견해를 서술하는 (narrate) 방식으로 주관적으로 표현된다.” 고 설명했다 (岩本通彌, 「現代日常生活的誕生: 以昭和 37 年度厚生白皮書爲中心」 참조). 더불어 이와모토는 “객관적 역사는, 주관적 역사가 어떻게 진술됨으로써 현실성을 갖게 되었는지 재고한다.” 고 주장했다.
- 14) Dow James and Hannjost Lixfeld, Trans and Eds. *German Volkskunde: A Decade of Theoretical Confrontation, Debate, and Reorientation (1967-1977)*,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886, p.2.
- 15) Herman Bausinger (吳秀傑 역), 『日常生活的啓蒙者』,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4, 68 쪽.
- 16) 岩本通彌, 「現代日常生活的誕生: 以昭和 37 年度厚生白皮書爲中心」. 이와모토는 아나기타 구니오의 民間傳承論 에서 독일 현대 민속학의 주장과 유사한 근거를 찾고 있다.
- 17) 파네키가 논평한 것처럼 바우징거가 ‘일상생활의 계몽자’ 로서 나선 까닭은, 독일 전후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환경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환경이 바우징거의 절충주의적이고도 지나치게 신중한 연구 성향을 제한했다고 본다.
- 18) Herman Bausinger (吳秀傑 역), 日常生活的啓蒙者,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4, 7 쪽.
- 19) Ben Hamor, 王志宏 역, 日常生活與文化理論導論, 商務印書館, 2008; Michael E. Gardiner, *Critiques of Everyday Lif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2000.
- 20) 바우징거는 자신이 해럴드 가펩클 (Harold Garfinkel) 의 ‘민속방법론 (Studies in Ethnomethodology)’, 아그네스 헬러 (Agnes Heller) 와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이론’, 노베르트 엘리야스의 ‘일상생활 비평이론’ 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Herman Bausinger, 앞의 책, 2014, 101 쪽 참조; Hermann Bausinger, “Media, technology and daily life” *Media, Culture and Society*; No. 6, 1984, pp. 343-351) 튀빙겐 경험문화연구소와 버밍엄 당대 문화연구센터에서 종사한 기간 중 접치는 시기도 있었거니와, 그는 현상학과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사회학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Herman Bausinger, 위의 책, 178 쪽 참조)
- 21) ‘실천, 역사, 문화와 권력’ 이 어떻게 1970년대 국제적 학술 사조의 키워드가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Sherry B.Ortner, *Anthropology and Social Theory: Culture, Power, and the Acting Subject*,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and London, 2006. pp. 1-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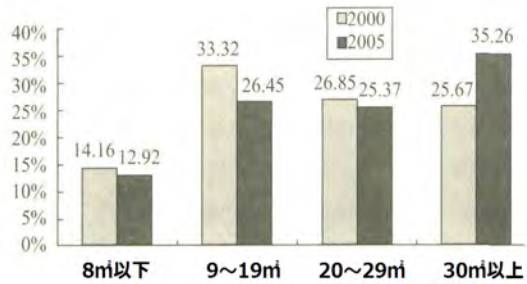
‘당연합’에 대한 재조명 (왕)

항목		종류	1	2	3	4
주택형 면적별 기준 (㎡)	사용면적		42~48	53~60	64~71	75~90
	건축면적		55~65	70~80	85~95	100~120
기능공간 사용면적 기준 (㎡)	거실		18~25			
	큰방		12~14			
	2인 침실		12~14			
	1인 침실		8~10			
	주방		6 이상			
	식당		8 이상			
	화장실		4~6 (화장실 두 칸으로 증축조절가능)			
	현관		2~3			
시설배치기 준	주방	I형	버너 (cooktop), 조리대, 개수대, 불박이장, 냉장고자리, 주방환기구 (환기구연장길이≦2700mm)			
		II형	버너 (cooktop), 조리대, 개수대, 거치대, 불박이장, 냉장고자리, 주방환기구 (환기구연장길이≦3000mm)			
	화장실	I형	샤워기, 세면대, 좌변기, 거울욕실장, 세탁기자리, 환기구			
		II형	욕조 (1.5m) 및 샤워기, 세면화장대, 화장거울, 세탁기자리, 좌변기 (1~2 대), 기계식 환기구			
설비기준	전기설비	전력사용량	월 80~200 KW.h			
		부하	1560~4000W(대형 면적은 6000KW 까지 증가 가능)			
		전력계	5 (20) A~10 (40) A			
		콘센트	큰거실 2~3 세트			
			작은 거실 2 세트			
			주방 3 세트			
			화장실 3 세트			
		텔레비전단자	거실 침실에 각 한 개			
	전화	1~2 대				
	에어컨 선	전용선 설치				
급수설비	물사용량 사람 당 200~300 리터 · 온수기나 온수관리방식					
난방통풍	방열기 냉방기 (창밖 지정장소)					
실내환경질 적기준	빛환경	조명	채광	≥ =1% (야외 하루 일광도와 실내 창으로부터 1m 높이의 자연광 비율)		
			거실 및 일반 활동구역	30~70 lux		
			침실, 학습	150~300 lux		
			침대옆 독서	75~150 lux		
			식당, 주방	50~100 lux		
			화장실	20~50 lux		
	소음환경	공간방음	세대간 경계벽, 층간바닥 ≥ 40~50 db			
		충격방음	층간바닥 ≤ 75~65 db			
	난방환경(기 후연동식)	겨울철	난방설비 구역	16~21℃		
			비난방설비구역	12~21℃		
여름철		여름철	<28℃			

부록1 도시 시범단지 주택설계 권고기준

2000년 소강형 도농주택 과학기술산업 공사 도시 시범지역 계획설계 지침

(2000年小康型城鄉住宅科技產業工程城市示範小區規劃設計導則), (住宅科技, 1997年, 제3기, 25쪽)



부록2: 2000~2005년 베이징시 1인당 주택 건축면적 변동현황 (%)

근거자료: 2005년 인구% 표본 추출조사

직업별	연도		증가면적
	2000	2005	
국가기관, 당원조직, 기업, 사업단위경영자	25.28	31.59	6.41
전문기술자	24.00	29.21	5.21
사무직 및 관련종사자	22.77	27.25	4.48
상업, 종업원	17.55	20.25	2.70
농업, 임업, 목축, 어업, 수리업생산종사자	23.75	26.93	3.18
생산, 운수설비종사자 및 관련종사자	20.12	21.91	1.79
기타업종	22.36	26.10	3.74

부록3: 2000-2005년 세대주의 직업별로 본 베이징시의 1인당 건축면적(단위:

m²)(중국국가 통계국, 「2005년 전국 1% 인구추출 조사」)